

2024년 예비군훈련 방향 제언

입력 2024. 02. 16 14:21 업데이트 2024. 02. 16 14:22



강용구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현대전에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두 전쟁 모두 예비군이 중심이 돼 치러지고 있으며 전쟁지속 능력이 향후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민과 예비군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예비군훈련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훈련준비 면에서 부대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격장 피탄지 일대의 방호벽 상태 확인, 철제 구조물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선행함으로써 사격훈련 여건보장과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훈련체계 면에서 일부 과목에 대한 원격교육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론교육이나 단순 반복 기본훈련, 선행학습 등은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훈련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내용 면에서 핵 및 화생방 방호 과목에 대한 내실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전에 방독면 전문 관리실 견학을 통해 위생 관리 신뢰성을 높이고, 실습은 가능한 실내교장으로 구성해 기상에 관계없이 항상 쾌적한 실습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넷째, 국민의 편의 확대 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휴일 예비군훈련과 전국단위 훈련 신청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지금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훈련용 전투복 대여 제도는 적용 부대 확대와 사전 홍보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관련 예방조치는 지속돼야 한다. 예비군훈련은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장지휘관이 판단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를 통해 개인별 훈련 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학생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방부와 교육부는 협업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학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위협 속에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통합 전투력 운용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

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4년은 예비군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비군의 임무 수행태세를 갖추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복무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 노력 또한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